

# 서사시에 나타난 ‘민족’ 형상화에 관한 비교 연구

## - 고은의 『백두산』과 리옥의 『고향 사람들』, 『풍운기』를 중심으로

장은영  
(남서울대학교)

### 1. 서론

서사시는 민족 단위를 구성한 한 집단이 공유하는 과거에 대한 기억을 대상으로 삼는 문학 장르이다. 일반적으로 서사시는 민족사적 과거를 이야기의 대상으로 삼으며, 재현된 민족사를 통해 집단적 기억(collective memory)<sup>1)</sup>을 창출한다. 달리 말해, 서사시는 작가 한 개인의 창작물이지만 동시에 동시

---

1) 알바쉬(Maurice Halbwachs)는 “모든 집단 기억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제한된 집단을 필요로 한다”(Maurice Halbwachs, *The Collective Memory*, with an introduction by Mary Douglas, New York: Harper-Colophone Books, 1950, p.84.)고 보고, 궁극적으로 모든 기억이 집단적일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개인의 자서전적인 경험일지라도 그에 대한 기억은 -사회 구성원들과의 결합을 통해 기억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들 속에 뿌리내리고 있다. 역사적 기억의 경우, 사람들은 어떤 역사적 사건을 직접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행위나 그 집단의 전세대가 이루어놓은 성취들을 수집하면서 읽거나 듣기를 통해 또는 기념할만하거나 축하할만한 행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용한다. 이러한 경우 과거는 사회적 기관에 의해 저장되거나 번역된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Maurice Halbwachs, edited, translated, and with an introduction by Lewis A. Coser. *On collective memory*,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pp.22-24.)

에 집단적 기억에 근거한 한 집단의 과거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나간 인간의 경험인 과거를 역사화하는 이야기는 집단적인 기억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sup>2)</sup> 서사시에 재현된 과거는 망각과 기억을 통해 재구성된 이야기이고, 그것은 현재의 구성원들에게 과거를 인식하는 틀을 제공한다. 개인이나 공동체는 자신들의 역사 이야기를 받아들임으로써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sup>3)</sup> 따라서 민족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서사시는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는 담론으로 작동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민족 정체성은 과거로부터 변함없이 전승되는 정체성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선택적 서사 전략을 통해 재구성되는 정체성이다. 즉 서사시에 재현된 집단 정체성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서사되는 시점에서 요구되는 한 민족 집단의 사회적 정체성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사시에 재현된 민족 관념은 각 사회의 특수성과 시의성을 반영하며, 현재적 욕망뿐만 아니라 운명 공동체로서 미래에 대한 지향까지도 내재하게 된다. 따라서 서사시는 과거를 토대로 현재와 미래의 지평을 통해 그 사회 집단이 지닌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매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고은의 『백두산』에 나타난 민족 형상화와 조선족 작가 리옥의

2) 신형기, 『민족 이야기를 넘어서』, 삼인, 2003, p.20.

3) 개인이나 집단의 이야기는 이야기 주체인 ‘누구’의 행위와 삶에 관해 설명함으로써 그들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즉 정체성, 즉 이야기 정체성(narrative identity)을 부여한다. 폴 리콕르는 역사의 허구화와 허구의 역사화가 교차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또는 역사와 허구의 상호 교배에서 창출되는 이야기 정체성을 ‘새싹’의 탄생에 비유한다. 개인이나 공동체에 부여된 이 특수한 정체성은 실존의 범주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으며, 개인이나 공동체의 정체성을 말한다는 것은 ‘누가 그런 행동을 했는가?’, ‘누가 그 행동 주체이고, 당사자인가?’ 하는 물음에 답하는 것이다.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를 동일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서술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는 곧 삶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설명된 ‘누구’의 정체성이 바로 이야기 정체성이다. 어떤 공동체는 자신들의 실제 역사가 되는 이야기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들을 스스로 인식하는 가운데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선택된 기억들은 민족의 역사로 채택되고, 그것은 민족 정체성을 만드는데 기여한다.(폴 리콕르, 『시간과 이야기 III』, 문학과 지성사, 2004, pp.471-474.)

서사시 『고향 사람들』 그리고 『풍운기』에 나타난 민족 형상화 비교를 통해 민족 정체성이 각 사회 집단의 요구에 따라 상이한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은의 『백두산』은 한국 현대 시사에서 서사시의 생산이 비교적 풍성했던 1980년대 후반에 출간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중반에 완간된 작품으로, 20세기 초 식민지배 하에서의 항일무장투쟁을 역사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작품이다. 주로 백두산과 만주 지역에서의 항일운동을 서사화한 『백두산』은 민족적, 민중적 성격이 두드러지며 통일에 대한 열망을 표출하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sup>4)</sup>

이에 비해 중국 조선족의 대표적 시인인 리옥<sup>5)</sup>의 『고향 사람들』은 1957년에 출간되었고, 『연변지가』란 제목의 중국어 단행본으로 출간되기도 한 작품이다. 리옥 “시 창작의 최고봉을 이루는 성과작이며 건국 후 조선족 시문학에 있어서는 하나의 뚜렷한 이정표<sup>6)</sup>가 된다고 평가되기도 하는 이 작품은 연변

4) 김재홍은 “민족해방·민중해방·인간해방이라는 근대사 최대의 테마를 방대한 스케일로 형상화”한 『백두산』이 “이제까지의 서사시에서 한 걸음 더 진전해가고 있는 것”이라 평가하고, “남쪽에서 전무하다 할 항일무장 투쟁사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분단극복을 통한 통일지향문학의 큰 실마리를 열어갈 것으로 기대”하였다. (김재홍, 김재홍, 『백두산』과 ‘만인보’, 그리고 고은의 문학사상, 신경림, 백낙청 편, 『고은 문학의 세계』, 창작과비평사, 1993, p.227.)

남기혁은 “『백두산』의 서사 구조는 한국 근대사에서 가장 의기롭고 영웅적인 민중해방·민족해방의 이념을 웅혼한 필치로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근대사의 커다란 성과이자, 현실주의 시문학의 공과를 가늠하는 하나의 시금석”이라고 평했다. (남기혁, 『민중 공동체의 서사시적 탐색』, 『시와 시학』, 1994, 봄호. p.103.)

5) 일제 식민지 시기 간도 문학의 대표자이자 해방 이후 중국조선족문학의 토대를 일군 리옥(李旭, 본명은 李章源, 1907-1984)은 중국조선족 문단을 대표하는 시인이다. 1924년 「생명의 레물」을 발표하면서 데뷔했고, 1930년대 중후반에 들어 <조광>, <조선지광> 등에 시를 발표하면서 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해방 이후에는 여러 문학 단체에서 일하며 예술단체를 정비하고 중국조선족문단의 기틀을 다지는데 일조했다. 1947년에 첫 시집 『북두성』, 1949년 『북쪽의 서정』을 출간, 1957년에는 중국조선족 시사에서 대표작으로 꼽히는 서사시 『고향 사람들』 출간, 같은 해 서사시 『장백산의 전설』을 출간했다. 그리고 생애 마지막까지 집필했던 서사시 『풍운기』를 남겼다. (20세기 중국조선족문학사료전집 편집위원회, 『작가 연보』, 『20세기 중국조선족 문학사료전집 -제2집 리옥 문학편』, 연변인민출판사, 2002, pp.605-608.)

6) 조성일 권철 외, 『중국 조선족 문학 통사』, 이회문화사, 1997, p.334.

지역에 거주하던 조선족 사회를 중심으로 벌어진 항일무장투쟁사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한편 리옥의 『풍운기』는 1920-30년대 용정 일대에서 벌어진 혁명투쟁을 반영한 서사시로 리옥 문학의 말기인 1980년대 초에 쓰여진 작품이자 리옥의 마지막 작품이기도 하다. 『고향 사람들』과 『풍운기』는 그 창작 시기가 다르지만 만주 일대에서의 항일유격투쟁이라는 동일한 소재와 서사 구조를 띠고 있다. 『고향 사람들』에 비하여 『풍운기』는 인물의 형상화나 사건의 전개에서 구체성을 확보하며 보다 탄탄한 서사 전개를 보여준다. 그러나 『풍운기』 머리말에서 “당의 령도하에 진행된 초기 혁명투쟁의 사실에 근거하고 또 나의 체험에 근거해 이 서사시를 썼다.”고 밝히고 있듯이, 『고향 사람들』에 비해 『풍운기』는 사회주의 문학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낸다.

이 두 작품에 대한 고찰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작품 외적인 데 있다.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중국 조선족 문단에서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론의 실천 양식으로 장편 서사시가 활발히 창작되었고,<sup>7)</sup> 이 장편 서사시들은 대개 일제 강점기 반제 반봉건 투쟁을 넘어 항일 무장 투쟁으로 나아가는 혁명적 낙관주의를 실현하며, 민담이나 민요 등을 활용하여 민족적 형식을 구현하고 있다.<sup>8)</sup> 이와 같은 현상은 리옥의 『풍운기』에도 반영되어 있으며, 1950년대에 창작된 『고향 사람들』과 비교할 때 사회주의 문학의 요구는 더욱 부각되어 있다. 본고는 조선족 사회의 민족 담론이 변모하는 양상을 통해 민족 정체성의 역동성을 살펴보고자 『고향 사람들』과 『풍운기』를 모두 대상으로 삼는다.

본고가 분석 대상으로 삼는 세 작품들은 만주 일대에서 벌어진 항일투쟁이라는 소재를 주된 서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히 백두산이라는 상징 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민족사의 위기와 그것의 극복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세 작품 모두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이 민족 담론의 동질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재외 동포 문학을 바라볼

7) 정덕준, 『중국조선족 문학의 어제와 오늘』, 푸른사상, 2006, pp.63-69.

8) 윤여탁, 「한국 문학사에서 중국 조선족 시문학의 의미」, 『선청어문』 vol.35, 서울대학교, 2007, p.124.

때 나타나는 민족적 동질성은 한국 사회와 재외 동포 사회가 동일한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리라는 항구적 민족성을 전제하고 있다. 민족 개념에 대해 비교적 종족주의적 견해를 수용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민족의 성격은 항구적이며 불변하는 집단적 무의식처럼 여겨져왔기 때문에 민족 개념은 선형적으로 주어진 것처럼 이해되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위의 세 편의 작품들은 동일한 역사적 사건과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도, 서로 다른 서사 전략을 통해 각 집단이 지닌 현재적 욕망을 표출하며 각 집단이 욕망하는 민족 개념을 재현한다. 따라서 이 작품들이 재현하는 민족은 동일한 정체성을 지닌 공동체가 아니다.

본고에서는 민족이라는 관념이 사회적, 역사적 산물에서 기인한 상상의 공동체이며<sup>9)</sup>, 민족 정체성은 한 집단이 지닌 사회적 욕망의 투영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한국 현대 서사시와 중국 조선족 현대 서사시에 나타난 민족 형상화를 비교 고찰해보고자 한다.

9)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 어네스트 겔러의 『민족과 민족주의』, 에릭 홉스봄의 『만들어진 전통』이 출간된 1983년 이후 민족주의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경향을 띠기 시작했다. 이 연구들의 공통적인 경향은 역사 현상의 근본주의를 해체하고, 역사 현상을 인간 정신과 그 범주들의 구조물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이 새로운 경향의 민족주의 연구들은 민족의 영원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 주장을 와해시키고, 언제나 다시 새롭게 정의될 수 있고 새로운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는 민족 개념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강조한다. 이들의 연구를 뒤이어 앤서니스미스의 『국민의 민족적 기원』(1986), 홉스봄의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1990), 프라센지트 두아라의 『민족으로부터 역사를 구출하기-근대중국의 새로운 해석』(1995) 등 주요한 민족주의 연구서들이 나왔다.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로 대표되는 신민족주의 논의는 초월적 이념으로 자리잡았던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데 매우 적절한 근거로 작용했고, 한국 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민족 담론에 대한 비판이 나타났다. 민족 담론을 비판하는 대표적 논자로 임지현(『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이념의 속살』 등)을 들 수 있다. 그는 민족이 민중을 전유하고, 국가가 민족을 전유하여 궁극적으로 민족주의가 국가 이데올로기로 변질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다른 연구자로는 신형기(『민족 이야기를 넘어서』 등)를 들 수 있는데, 그는 민족사 쓰기를 통해 만들어진 민족 이야기가 한국인에게 해방을 약속하는 억압으로 작용해왔다고 주장했다.

## 2. ‘민족’의 탄생지로서의 백두산

민족을 구성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영토이다.<sup>10)</sup> 민족 집단이 살아가는 거주지로서 영토는 추상적인 공간의 의미를 넘어 구체적인 삶의 경험과 이전 세대의 흔적들이 축적된 장소의 의미를 획득한다. 구체적 경험의 배경인 장소는 한 집단이 지닌 기억을 보존하며, 문화적 기억 공간들을 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sup>11)</sup> 민족이라는 집단에게 영토는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실존적 삶의 토대와 연결시키는 주요한 민족 구성 요소이기 때문이다.

민족 집단에게 있어 장소의 중요성은 민족 신화를 특정한 장소와 연결시키며, 민족적 성소로 간주하는 데서도 나타난다. 민족적 장소에 대한 언급은 근대 민족 담론을 생산하는 데 주요한 테마로 등장해왔다.<sup>12)</sup> 그 가운데 백두산은 국토 전체를 아우르는 민족적 장소의 상징처럼 여겨져왔고,<sup>13)</sup> 문학 장르에서도 백두산은 민족주의를 표상하는 장소로 형상화되어 왔다. 백두산이라는 특정한 장소가 한민족에게 민족이라는 관념을 실체화하고, 한 집단의 경험을

10) “국민이라는 등질적인 공동성의식의 성립, 그리고 그것과 서로 관련되는 국토라는 등질적인 공동 공간의식의 성립이, 이념적으로 등질화된 국민을 국토라는 공간을 매개로 하여 통치하는 영역적인 국민국가라는 통치제도의 성립을 서로 지탱하고 있다.”(와카바야시 미키오, 정선태 역, 『지도의 상상력』, 산치림, 2006, pp.244-245.)

11) 알라이다 아스만, 변학수·백설자·채연숙 역, 『기억의 공간』, 경북대학교출판부, 2003. p.392.

12) 식민지 조선의 국토기행문에 관한 연구들은 국민 국가가 부재한 상황에서 국토 기행을 통해 단일민족 신화를 창출하고 민족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근대 국토 기행문을 다룬 대표적 연구로는 구인모, 「국토 순례와 민족의 자기구성」(『한국문학연구』 제27권, 2004), 서영채, 「최남선과 이광수의 기행문에 대하여」(『민족문화사연구』 24, 2004), 「기원의 신화를 향해 가는 길: 최남선의 『백두산근참기』」(『한국근대문학연구』 6권 2호, 2005), 윤영실, 「문학적 글쓰기와 민족의 공간」(『한국현대문학연구』 26, 2008) 등이 있다.

13) 1920-30년대에 최남선, 안재홍, 정인보와 같은 민족주의 사학자들 뿐만 아니라 이광수, 이은상과 같은 민족주의 문학자들은 집중적으로 국토기행문을 발표했다. 특히 최남선과 안재홍은 백두산 부근을 고대국가의 발상지로 설정하고, 조선민족을 문화적 단일민족으로 규정하였다. (구인모, 「국토순례와 민족의 자기구성」, 『한국문학연구』 제27권, 2004, pp.132-133.)

민족이라는 상상된 집단의 경험으로 매개함으로써 민족에 관한 기억을 지속시켜 온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기록이나 문학적 형상화에서 백두산과 함께 연결된 민족 개념을 모두 동일시할 수는 없다. 서사가 각 시대와 사회적 상황이 욕망하는 정치적 무의식을 드러낸다면,<sup>14)</sup> 백두산에 관한 이야기들 역시 모두 동일한 민족 이야기가 아니라 민족에 관한 상이한 정치적 무의식을 반영한다. 따라서 민족 담론에 관한 연구는 그러한 층위의 차이들을 밝힘으로써 민족이라는 관념 안에 담겨있는 다양한 사회적 욕망들을 조명할 수 있게 된다.

고은과 리육의 서사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민족적 성소 역시 백두산이다. 그러나 항일무장투쟁이라는 역사적 소재와 백두산이 맺고 있는 연관성이 서사의 공통적인 모티브이지만 고은과 리육의 작품에서 백두산이 갖는 위상과 의미는 동일하지 않다.

먼저 고은의 『백두산』에서 백두산은 김투만 일가가 정착한 삶의 터전으로 전체 서사의 핵심적인 배경이다. 아스만은 “특정한 장소들이 특정한 기억의 힘을 지니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족사와의 확고부동하고 장기적인 연고 때문”<sup>15)</sup>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 작품에서 백두산은 봉건체제의 노비 추만길이 일가(一家)를 이룸으로써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가족사를 시작하는 곳이다. 새로운 가족사가 시작되는 백두산은 신성한 장소로 형상화된다.

- ①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빈 가슴으로 보오/ 천지 보오/ 천지 뚫고 그 물속의 하늘 보오/ 여기가 조선의 근본이오/ 여기가 조선 삼라만상의 정수 리오/ 여기가 조선땅 마루/ 여기가 조선 역사의 첫걸음이오/ 여기가 오늘 내일 멀고 먼 날의 운명 첫날밤이오/ 큰산/ 백두 영봉 열여섯 봉우리 한복판에서 펼쳐져/ 시방세계 이루어/ 그 절당한 힘으로/ 동서남북을 열어 자자손손 젖 먹이고/ 밥과 죽 먹여/ 마을마다/ 나라마다 사람 세상

14) 제임슨이 말한 바와 같이 문학의 장르는 본질적으로 사회-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문학의 형식은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이데올로기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Fredric Jameson, *The political unconscious*, Cornell University Press Published in the United State, 1981, p.141.)

15) 알라이다 아스만, 앞의 책, p.394.

이루었구나/ 과연 백두산/ 여기가 조선의 태초요 구경이오 (『백두산』1권, p.157.)

- ② 큰산 백두산 천지에 네 살박이 바우놈 풍덩 담갔다 꺼내야 하네/ 암  
그래야 하네/ 서필노인 잠든 바우 내려다보며/ 이놈 바우도 아기장수  
액때워야 하네/ (중략) / 이놈 바우놈/ 천지 검은 물 푸른 물에/ 삼세  
번 풍덩 담가/ 세 번 죽여 살려내면/ 아무도/ 아무 나라도 바우한테 꺾은  
손 쓰지 못하오/ 이 늙은이 말 깊이 새겨들으오 (『백두산』1권,  
pp.120-121.)
- ③ 보오/ 이로부터 망하지 않는 나라 열릴 것이오/ 바우의 나라/ 그 나라의  
인민/ 그 나라의 만백성/ 역조 억만 이슬방울까지/ 백두 영봉과 하나일  
터이오/ 천지의 한울타리일 터이오/ 바우의 나라/ 이로부터 열릴 터이오  
(『백두산』1권, p.167.)

백두산은 ‘조선의 근본’, ‘조선 역사의 첫걸음’. ‘오늘 내일 멀고먼 날의 운명 첫날밤’, ‘조선의 태초요 구경’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장소이다. 기원으로 서의 백두산은 조선이라는 영토 전체를 대유한다. 그리고 백두산의 신성함은 김두만과 조화연의 아들 바우의 출생 과정과 연결되면서 신화적 상상력과 만난다. 바우의 출생은 봉건 체제에서는 규정될 수 없는 정체성의 출현이며, 그러한 바우를 통해 전망되는 미래는 “바우의 나라”라는 구절을 통해 함축적으로 제시된다. “백두 영봉과 하나”인 “나라의 인민”이 만들어갈 새로운 나라는 백두산이라는 지리가 조국을 상징하듯이 하나의 국토 안에서 동질성을 획득하는 ‘인민’이라는 집합체와 동일시된다. 백두산과 인민의 결합은 국토와 민족(nation)의 결합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합은 바우의 출생이 봉건 체제와 이질적인 것이듯이 종족적 민족 개념을 떠나 근대적 민족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백두산이 한반도 전체를 대유하는 것처럼 김두만 가족 역시 한민족 전체를 환기시킨다. 발리바르에 따르면 근대 국가에서 가족제도는 학교 교육과 더불어 국가가 민족 이데올로기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국가 장치이다. 민족이 확장된 가족으로 인식되는 것은 여기에 인종주의적 관념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인



데, 인종공동체의 상징적 핵심은 세대에서 세대로 혈통이 이어지면서 동시에 생물학적이자 정신적인 어떤 것이 전달되는 혈족이 형성된다는 것이다.<sup>16)</sup> 가족은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혈연적이고 생득적인 관계로 인식하게 만드는 민족 국가의 기본 단위인 것이다.

근대 국가의 구성원인 민족(nation)은 봉건 체제의 구성원과 상이한 정체성을 부여받은 집단이지만, 혈연을 공유하는 인종적 동질성 위에서 그 기원은 고대로 소구된다. 따라서 백두산은 민족의 오랜 기원적 공간이면서 동시에 김두만 일가의 정착을 통해 새로운 민족 정체성을 창조하는 곳이다. 또한 미래의 새로운 민족 구성원의 탄생을 형상화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바우의 탄생이다. 이와 같이 『백두산』의 전체 서사에서 가장 비중있는 공간은 백두산이다. 백두산이라는 공간 안에는 영웅적 모티브나 신화적 모티브가 집약되어 있다. 백두산이라는 장소를 통해 신성하고 초월적인 민족 신화의 성격이 민족을 신성하고 초월적인 공동체로 형상화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리옥의 『고향 사람들』에서 백두산의 다른 이름인 장백산은 서사시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지 않지만, 머리시에서 그것이 지닌 상징성을 명시되어 있다.

장백산은/ 조국의 변경/ 창공에 우뚝 솟아/ 허리에 백운을 띠고/ 머리에 천지를 이었으니/ 그 장엄한 기상이 만고에 빛날진저!! 거기서 만악이 뻗어/ 이 땅에 닿았고/ 백천이 내려/ 이 땅을 추기나니!! 바로 저 아아한/ 모아산 기슭으로/ 해란강이/ 용용히 흐르는/ 이 벌판이/ -영웅이 달리던/ 성스러운 산하이고,/ -인민이 살아온/ 아름다운 연변이다!! (중략) 한줄기 두만강을 사이로/ 낮익은 두 겨레가/ 온갖 재화와 고난과 싸우면서/ 꿈쩍 없이 정답게 살면서,/ 의가 좋아/ 천하도 반분할듯/ 흰 소매와/ 푸른 소매는/ 서로 읊하고 사귀여,/ 인연이/ 청동이끼처럼 얼켜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두었나니!! 나는 이 정든 고향을/ 나의 부모와/ 형제와 자매, 더구나 용감한/ 나의 고향사람들과/ 영웅들을 대신하여/ 소리를 높여 찬미하노라! (『고향 사람들』 1장 부분)

16) 에티엔 발리바르, 서관모 역, 「민족형태: 그 역사와 이데올로기」, 『이론』 통권 6호, 1993, pp.126-131.

“조국의 변경”인 장백산은 모아산, 해란강이라는 지명들과 연관됨으로써 한반도가 중국 동북지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지리적 상상을 환기시킨다. 장백산의 산맥은 모아산으로 이어지는 듯이 형상화되고, 모아산은 장백산을 대신하여 연변 지역에 정착한 조선족들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표현된다. 위 시에서 조선족들이 거주한 연변 일대는 중국의 영토에 귀속되어 있지만, 동시에 ‘조국’이라는 민족적 관념의 영토와 분리되지 않는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리옥이 『고향 사람들』을 창작한 1950년대 중후반 조선족들이 한반도를 모태로서의 조국으로 그리고 현실의 터전인 중국을 제2의 조국으로 수용하고 있었던 상황을 보여준다. 조선족들에게 조선과 중국은 모두 부인할 수 없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집단인데, 이는 국가적 경계로 분리된 한반도와 중국 동북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두 나라 간의 관계 설정이라는 과제를 부여하게 된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는 리옥의 행적에서도 발견된다. 리옥은 중국 건국 이후 연변 문인 단체 등에서 활동하면서 중국 문인 단체와의 연계를 시도하고, 스스로 중국어 창작을 하기도 하면서 조선족 사회와 중국인 사회의 조화와 흡수를 시도했다. 해방 이후 중국 건국 시기에 조선족 사회는 중국이라는 새로운 국가 체제 안으로 편입하는 것이 현실적 문제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두 집단의 결합과 공존은 조선족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흰 소매와/ 푸른 소매는/ 서로 읊하고 사귀여,/ 인연이/ 청동이끼처럼 얼켜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두었나니”와 같은 부분들은 이러한 당대의 과제를 인식하고 있는 작가의 태도를 보여준다. 상징화된 조선과 중국의 “인연”은 조선족들에게 연변을 제 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심리적 근거가 된다. 지주와의 투쟁과 항일유격투쟁이라는 공동의 목표 하에서 조선족들의 목숨을 건 영웅적 투쟁과 그 가운데 발생한 중국인들과의 동지애, 인간애는 한반도와 중국의 영토가 하나의 산맥으로 이어져있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이 운명적 인연은 조선족들이 새로운 정치 집단으로서의 민족 구성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한편 백두산이라는 특정한 장소를 배경으로 삼은 항일 유격 투쟁사는 이들을 운명의 공동체로 맺어주는 주요한 계기로 등장하고 있다. 한반도와 중국의

경계를 이루기도 하는 백두산의 지리적 위치는 조선족들의 사회적 위치를 적절히 반영하는 지리적 상징물이며, 조선족과 중국인의 운명 공동체로서의 인연이 맺어지는 장소이기도 하다. 『고향 사람들』에서 조국의 변강인 장백산은 곧 새로운 영토인 연변에 정착하는 조선족의 입지를 공고히 만들어주는 장소이다.

조국의 변강/ 나의 사랑하는/ 고향 땅 고향사람들/ 아름다운 연변을 보라//  
장백산기슭/ 두만강 언덕/ 그 이름 다시 불러/ 연변조선족자치주// 한 나라  
/ 6억만의 큰 집 안에/ 형제민족과 함께/ 이 땅을 알뜰히 가꾸어/ 금전옥토  
로 만들고// 한족은 조선족을/ 조선족은 한족을/ 힘을 모아 서로 돕고/ 다  
투어 서로 일하는/ 새법으로 뭉치였다/ 하여 오늘은/ 산과 들에/ 오곡과 백  
과가 무르익고/ 마을과 거리에는/ 메아리와 어깨춤이 흥겨워// (중략) 이렇  
듯 인민의 투쟁/ 영웅의 전통은/ 수많은 영웅을 낳고/ 인민의 정열/ 사랑의  
원천은/ 무한한 사랑을 맺나니// 이 땅/ 연변의 수부-/ 이 거리 연길은-  
우리의 자치의 성! (『고향 사람들』 5장 부분)

장백산 자락과 연결되어 있다는 지리적 상상은 연변을 조국의 변강으로 인식하게 한다. 장백산과 연변 지역이 조국의 변강이라는 표현은 당시 조선족 사회가 지닌 양가적인 태도를 짐작케 한다. 한쪽 측면은 조선족들이 이주한 소수민족이지만 중국 건국 이후 공인된 조선족자치지역의 주인으로서 그 권리를 지니는 것이 마땅하다는 태도이다. 영토가 명확한 경계로 나뉘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조선족들의 이주나 정착도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은 연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획득했지만, 그것이 중국이라는 국가 체제의 공인 하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조선족 또한 새로 탄생한 중국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나라/ 6억만의 큰 집 안에/ 형제민족과 함께”라는 구절은 새로운 국가가 과거의 민족을 통합하는 새로운 체제임을 밝히면서, “인민의 투쟁”과 “영웅의 전통”이 이들의 새로운 정체성의 토대가 됨을 수용하고 있다.

『고향 사람들』이 조선족의 정착사와 항일투쟁에서 맺어진 조선족과 한족의 인연 등을 통해 연변이 조선족들의 ‘고향’임을 확인하고 있다면, 『풍운기』

는 보다 조직적이고 의식적인 투쟁을 서사화하여, 항일투쟁의 승리가 새로운 민족 집단의 성과임을 명확히 제시한다. 『풍운기』는 『고향 사람들』보다 다양한 배경을 보여주지만, 전체적인 서사의 중심인 장백산을 배경으로 호방한 영웅의 기상이 형상화된다. 『고향 사람들』에 비해 『풍운기』에 나타난 장백산은 이제 조선이라는 과거의 조국을 상기시키기 위한 배경이 아니라 격렬한 혁명투쟁의 배경이라는 점이 강조된 장소이다.

① 백발을 휘날려/ 하늘아래 장백이나/ 천지를 떠이여/ 구름우에 령봉이나  
// 하늘과 땅이 맞붙은/ 장백에 올라/ 만리에 날아에는/ 수리개를 보라//  
바람과 구름이/ 휘몰아치는 령봉에 서서/ 삼추에 회파람 굴리는/ 수리  
개를 보라// 무지개를 타고 올라/ 산천초목을 굽어보고/ 창공에 치솟아/  
일월성진을 찾아간다// 우리의 노래속에 나래치는/ 호탕한 수리개는 울  
부짚고/ 우리의 기말우에 날아에는/ 용맹한 수리개는 혈전을 부른다.  
(『풍운기』 머리시 전문)

② 오늘 이 승리는 군민이 굳게 뭉친 힘의 승리입니다/ 유격대가 가장 곤난  
할 때/ 여러분은 식량을 날라다주었고/ 유격대원들을 보호해주었습니  
다...// 여러분, 보십시오/ 줄줄이 뺏어내린 장백산/ 도도히 굽어치는 강  
물을/ 저기 들판에서 황금이 무르익습니다// 우리의 강산은 얼마나 아름  
답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최후로 일제놈을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  
는 수림처럼 일떠나/ 단결해 싸웁시다/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풍운기』 제9장 승전의 레포소리 부분)

리옥은 『풍운기』를 통해 민족에 관한 관념의 변이를 드러낸다. 인용 부분 ①과 ②는 『풍운기』의 서두와 마지막 부분이다. 여기서 장백산은 조선과 연결된 장소이거나 조선을 상기시키는 장소가 아니라 유격대의 용맹성과 혁명의 의지를 드러내는 곳이다. “우리의 강산” 전체를 상징하는 장백산은 일제와의 격전지라는 점에서 광범위하게는 조선과 만주 일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우리’란 당의 기치 아래 단결한 “군민”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집단의 정체성을 의미한다. 종족적 범주의 민족이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면, 정치적 범주의 민족은 중국이라는 국가 체제에서 지니게 되는 정체성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작품에서 백두산이 지닌 상징적 의미는 서로 다르다. 백두산이 민족적 신성함을 갖는 장소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고은의 『백두산』에서 신성함과 초월성이 강조되었다면, 『고향 사람들』과 『풍운기』에서 백두산은 조선족들이 정착하는 새로운 영토인 중국 동북지역이 민족의 영토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시사한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에서 장백산은 조선이라는 모국과 새로운 정치 체제인 중국을 결합시키는 매개적 장소였다면, 『풍운기』는 계급투쟁과 항일투쟁이라는 혁명투쟁의 기상을 상징하는 장소이다.

리옥은 『고향 사람들』에서 종족적 차원의 집단으로서 민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조선족의 정착사나 선조의 고향으로서 조선에 대한 기억이 배제된 『풍운기』에 이르러서는 정치적 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하게 표출된다. 『풍운기』는 계급투쟁, 항일투쟁을 통해 근대적 개념의 민족(nation)에 대한 자각을 보여준다.

고은의 『백두산』에서 민족의 기원지인 백두산이 표출하는 신성성은 민족이라는 관념에 신성성을 부여한다. 신성함은 민족 공동체가 그 어떤 인공적인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와 달리 자연적인 공동체임을 말해준다. 민족 공동체의 신성함은 민족 공동체 수호를 당위화하고, 민족 정체성이 공동체 내부의 다른 정체성을 누르고 초월화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비해 리옥의 『고향 사람들』은 장백산이라는 배경을 통해 조선족의 양가적 입지를 표출한다. 장백산은 종족적 민족으로서 지니는 정체성과 동시에 새로운 영토 연변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상징적 공간이다. 그러나 『풍운기』에 이르러 종족적 민족 정체성(ethnic identity)은 거의 사라지고,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민족 정체성(ethnic identity)이 대두된다. 여기서 장백산은 조선족들이 당의 지도 하에 유격대 활동을 완수함으로써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로 결합되는 상징적 공간이며, 이는 그들의 이념적 지향이 혈연적 관계보다 우선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 3. 민족의식을 체화한 주체의 탄생

본 장에서는 고은과 리옥의 작품에서 등장하는 영웅적 주인공들에 관한 재현 양상을 통해 민족 정체성의 성격을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서사시가 집단적 경향을 띤 산물로 개인적 창작자와 개인적 운명이라는 주제보다는 집단적 운명을 주제로 택하듯이 서사시의 주인공은 자기 선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역할과 모험을 중시하는 집단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지닌다.<sup>17)</sup> 현대 서사시에서도 인물 특히 주인공은 근대적 개인이지만 집단적 정체성을 대표하는 성격을 구현한 개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작품의 주인공들은 작가에 의해 구성된 집단 기억을 통해 구현된 민족 주체의 한 전형이라 하겠다. 서사시에 나타난 주인공, 특히 민족사를 다룬 서사시의 주인공은 민족 이야기를 통해 드러나는 민족 정체성의 양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백두산』에서 이야기의 중심을 차지하는 인물은 김투만 일가족 모두이지만, 전통과의 단절 그리고 근대적 각성을 보임으로써 근대적 민족 주체의 출현을 보여주는 것은 김투만이다. 부여 조감사 맥의 머슴 추만길은 한양아씨 조화연과 도주하여 고향인 부여로부터 도망쳐 나온 후 추격을 피하기 위하여 이름을 바꾸고 단절한다. 그들은 추격자로부터 도망치며 고향에서 벗어남으로써 과거의 사회적 질서인 봉건체제로부터 이탈한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과 봉건 질서 하의 과거는 전체 서사에서 망각된다. 이 과정에서 추만길은 여러 차례 개명을 하는데 여기서 개명은 단순히 명칭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봉건체제와의 결별을 의미한다. 김투만이라는 이름을 얻은 이후, 그는 식민지화되어가는 조선의 소식을 전해 들으며 내면적 각성을 경험한다.

- ① 나 부르는 소리/ 얼굴 없는 그 소리/ 티끌 하나 없는 하늘의 내장 전체여 / 그 소리 하늘의 고통이여/ 아니다 땅이다/ 땅이 부르고 있다/ 너 부르는 소리/ (중략) 백두산은 백두산 하나가 아니다/ 백두산 주위 천리 이 천리가 대 백두산이 아니더냐/ 가거라 백두산 어느 곳 하나도/ 네 눈이고 네 가슴 아니더냐 (『백두산』1권, p.176)

17) 민병욱, 『한국 서사시와 서사시인 연구』, 태학사, 1998, p.23-25.

- ② 의병은 나라의 관군과 달리/ 일체가 병정 자신으로부터 비롯하여/ 병정 자신으로 끝납니다/ 병정 하나하나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백두산』2권, p.73)

김투만의 각성은 백두산이 조선의 땅 전부와 마찬가지로 김투만이라는 개인도 민족 전체와 같다는 것이다. 이로써 근대적 주체로서의 자각을 가진 개인 김투만이 자신을 민족 전체와 동일시하게 된다. 머슴이라는 일반 백성 신분에 지나지 않은 김투만이 민족의 일인이 되었다는 것은 김투만이 근대적 주체로 변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8)</sup> 개인과 민족의 동일시는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한 의병대에 관한 서술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기억은 개인의 정체성을 민족 정체성으로 수렴시키려는 욕망을 드러낸다. 이와 같은 동일화의 기저에는 개개인의 마음속에서 발현되는 애국심이 있다.

『백두산』에 나타난 봉건 시대와의 단절 그리고 개인의 내면적 각성은 근대적 개인의 등장이고 그 개인이 조국의 운명을 걱정하며 자발적으로 싸움에 나서는 애국심의 발현은 근대 국가의 민족 정체성을 드러낸다. 또한 김투만은 자신을 민족 전체와 동일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의병대에 나서게 되는데, 여기서 민족을 위한 독립 운동은 가족을 위하는 것, 동포를 위하는 것과 동일시된다. 나와 가족이 혈연으로 맺어진 운명 공동체이듯이, 가족과 민족의 동일시는 민족 공동체 역시 확장된 혈연관계로 구성된 운명 공동체라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이 운명 공동체는 과거에 대한 동일한 기억을 토대로 공동의 미래를 지향한다.<sup>19)</sup> 어떤 공동체에게 공동의 미래가 주어질 때, 그것은 현재의 공동체를 더욱 결속하게 만들고, 미래를 위한 임무를 개인에게 부과한다.

이에 비해 리옥의 『고향 사람들』과 『풍운기』는 이주의 경험으로 인한 조국

18) 민족(nation)은 공동체 내의 평등주의적 색채를 드러내며 민족국가체제라는 새로운 인식틀을 드러내는 집단인데 비해 백성은 양반과의 구별을 함축하며 수직적 신분질서를 나타내는 집단이다.(권보드래, 「근대 초기 '민족' 개념의 변화」, 『민족문학사연구』vol.33, 민족문학사학회, 2007, pp.201-202.)

19) 에르네스트 르낭, 신행선 역, 「민족이란 무엇인가」, 『민족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2002. p.81.

과의 단절적 현실의 토대 위에서 강력한 기억의 환기를 통해 새로운 반제 반봉건을 외치는 영웅적 인물을 형상화한다. 이민족의 영토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과거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다른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요구되었다. 조선족들이 거주하는 동북지역은 중국 건국 이후 조선족 자치구역으로 인정되지만, 중국이라는 국가 체제 안에서 거주하는 영토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과 또 다른 민족 정체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리옥의 서사시에서 영웅적 인물들은 그러한 요구에 맞게 창조된 민족 주체의 한 전형을 보여준다. 리옥 자신이 서사시를 통해 ‘고향 사람들’을 잊지 않고자 썼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 때 고향 사람들은 실제 개개인으로서의 인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중국 조선족이라는 집단적 정체성의 전형을 보여주기 위한 집단이다.

- ① 이웃 거래와/ 정이 들어 넘나들고/ 의종계 지내던 땅/ 이 지구에/ 불현 듯이 웅기종기 옮겨왔다// 발발한 생의 의욕에 불탄/ 개척의 대오는/ 남부너대로 늘어 서서/ 이 땅에 밭을 옮길 제/ 때로/ 두만강 물결에/ 하염 없는 주검이 떠가고/ <알미대> 고목에는/ 불길한 까마귀가 울었건만/ 기벽 센 백성들의 보벌은/ 뚜벅뚜벅 거세었나니// 하여 삼득이와 나도/ 살뜰한 인연따라/ 이 기름진 땅으로/ 황량한 벌판으로/ 숨 가쁜 자옥을 적었다// 이동하는 백성들은/ 인어조 우는 원시림과/ <아드라기> 깔린 진펄을 더듬어/ 날랜 거래로서의/ 자유로 삶을 찾아/ 두만강을 등지고/ 쪼릿쪼릿 설렌 마음 달렸다./ 미래의 복지에 귀틀집을 세우고/ 새로/ 다음날의/ 투지를 다지었다 (『고향 사람들』 2장 부분)
- ② 이 땅의 남아들/ 드센 젊은이들은/ 청년회/ 부녀회/ 농민회.../ 땅의 기발 아래서/ 경경한 새 삶의/ 빛을 향하여/ 용약 일떠나가는 길에서/ 감곳은 원쑤의 총칼과/ 기세 드높게 싸웠다. (『고향 사람들』 2장 부분)

위 인용부분 ①은 조선족들의 이주사를 조명하면서 이들이 본래부터 삶의 투지와 강한 기백을 가진 이들임을 보여준다. 두만강을 넘어 중국 동북지역에 오게 된 이유 또한 “날랜 거래로서의/ 자유로운 삶”을 찾기 위한 것이다. 인용



부분 ②에서도 조선족들의 강한 투쟁의 의지가 강조되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들이 일본 제국주의라는 공통의 적에 맞서 당시 중국 공산당과 결합함으로써 더욱 강한 투지를 드러낸다는 점이다.

『고향 사람들』의 서술자인 “화전민 덕보의 아들” 인 ‘나’는 주인공 삼득이의 친구이다. ‘나’의 행적에 대해서는 구체적 진술이 없으나 1장에서 서술자는 고향 사람들과 영웅을 찬미하기 위해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밝힌다. 이 작품의 영웅적인 주인공 삼득이는 당에 선서하고 유격대에 자원하여 일제와 싸우는데 앞장선다. 『고향 사람들』은 유격대에 들어가 활약하는 삼득이와 고향 사람들의 영웅적 행적을 보여주는데 집중된다.

- ① 기둥처럼/ 뺨치고 섰던 삼득이/ 그리고 당원들/ 삼시에/ 무덤을 파던 삼을/ 번개처럼 날려/ 놈들의 대갈통을/ 까놓힌다(『고향 사람들』 3장 부분)
- ② -동지들! 나를 향해 수류탄 던지시오/ 그에겐 언녕/ 생사가 도외시됐었다.// 순간, 삼득이는/ 입당 선서때가 떠올랐다/ -조직과 나라를/ 목숨으로 보호하겠다고/ -그래두 안돼,/ 먼저 무리놈들을 까부시자(『고향 사람들』 3장 부분)
- ③ 삼득이 비호처럼/ 뛰어 내려가며/ 나무단처럼 버드러진/ 놈들의 시체에 서/ 9.9보총 한자루 쥐고/ 말안장에 오르는 놈을 겨누어/ 복수의 방아쇠를 당겼다(『고향 사람들』 3장 부분)

위 인용부분들은 삼득이의 영웅적 활약을 묘사하고 있는데, 삼득이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데는 “조직과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자리하고 있다. 『백두산』에서 김투만의 애국심이 조국과 민족을 위한 것이라면, 삼득이의 애국심은 당 조직과 나라라고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의성을 띠고 있다. 여기서 당은 중국 공산당이지만 나라의 의미는 조선일 수도, 중국일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라”에 내포된 중의성, 즉 삼득이를 비롯한 고향 사람들이 지닌 애국심은 유격대의 묘비에 관한 묘사에서 잘 드러난다.

- ① 무덤에는/ <조선족 영웅의 묘>라는/ 아름답리 생 나무 비가 썼고/ 그 모서리에는/ <중국 사람이 세움>이라고/ 아직도/ 금불환 먹냄새가/ 바람에 풍겨서 향기로왔다.// 아! 그들 정신이/ 천추에 빛나고/ 그들 이름이/ 청사에 날리련만/ 멀리서 옷깃을 여미고/ 묘비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비분에 울었나니// 놈들은 황겁하여/ 그날 밤도와/ 위만군, 자유대, 경찰을 출동시켜/ 온 동리와/ 부근 삼십리 안팎을/ 살살이 뒤지면서/ 묘비 세운 사람을 찾았으나/ 한족 사람, 조선족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모른다>는/ 한마디 말, 한 눈길, 한마음이였다.(『고향 사람들』 3장 부분)
- ② 아, 이 위대한/ 단결과 우의여/ 아아!/ 이 장엄한/ 정의와 진리여!(『고향 사람들』 3장 부분)

삼득이가 지녔던 “조직과 나라”에 대한 충성심은 위의 부분을 통해 설명된다. 일제와 맞서 싸운 조선족 영웅의 무덤은 조선족이나 한족을 하나로 단결시키는 희생이다. 조선족 영웅의 묘비를 중국 사람이 세움으로써 그들은 일종의 공모를 한 것인데, 이러한 사건이 그들이 운명 공동체라는 교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 요컨대 희생에 대한 기억으로서의 묘비는 조선족과 한족 모두에게 운명 공동체로서의 역사적 경험을 제공하는 기억의 매개체인 것이다. 이러한 기억들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해준다.

아아! 우리들은/ 임진국난을 이겨낸/ 조상들의 후예이고/ 8년 항전을 이겨낸/ 영웅들의 자손으로/ 해방을 위하여 싸웠고/ 정의를 위하여 싸웠나니  
(『고향 사람들』 4장 부분)

『고향 사람들』에서 ‘우리’는 조선족이라는 범주를 명확히 밝힌다. 조선의 후예로서 일제와 맞서 싸운 ‘우리’는 영웅의 자손이다. 애국심에 대한 자각을 통해 새로운 나라에 대한 인식이 싹트고 있지만, 여전히 조선의 후예로서 조선족이라는 보다 종족주의적 민족 개념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항일 유격투쟁의 영웅적 인물을 통해 조선족과 한족의 운명적 인연을 그려

낸 『고향 사람들』에 비해 『풍운기』는 보다 전형적인 인물 형상화에 집중하는 서사를 보여준다. 항일 유격대인 범두와 덕수의 행적은 보다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드러난다. 특히 주인공인 정범두의 어린 시절에 대한 구체적 서사는 그가 계급투쟁에 나서게 된 배경을 보여주고, 나아가 계급투쟁과 항일투쟁이 왜 결합되는지를 설명한다.

- ① 굶어죽는 한이 있어도/ 자식을 공부시켜야지/ 퍼렇게 눈뜬 소경이 되구야/ 어이 대명천지 보랴...// (중략) 남달리 공부에 뛰어난 범두/ 남들은 까만 학생복에 반짝이는 단추/ 긴 모자채양에 와셀린 발라 썼지만/ 아예 그런것엔 외눈도 팔지 않더라// 하여, 어머니는 범두를 애지중지해/ 손바닥우 광주인양 만졌거니,/ 어서 커서 기둥감이 되라고/ 어서 커서 영웅호걸 되라고... (『풍운기』 제1장 중학생 옛장수 1부분)
- ② 박운씨는 사방을 둘러보고/ 목소리 낮추어 하는 말/ -무산자들 일떠나 착취계급 뒤엎는 것/ 그것은 세상의 진리라오// -우리는 왜서 못사오?/ 일하지 않아서 못사오?/ 우리는 그래 대대손손/ 억울함 속에서 살아야 한단 말이요?// -인민의 피땀을 빨아먹는/ 제국주의와 착취배를 뒤엎어야 하오/ 그러자면 젊은 청년들은/ 세속에서 벗어나 새길을 개척해야 하오// 마디마디 범두의 가슴에 안겨지는 말/ 그러나 범두는 알바 없다/ 어찌해야 착취제도 뒤엎는가/ 어찌해야 새길을 개척해야 하는가를...// (중략) 박운씨의 그 말/ 범두의 가슴에 희망의 불씨 안긴다/ 피끓는 청년의 가슴에/ 모닥불을 지핀다. (『풍운기』 제2장 일요일이면 만나는분 2 부분)
- ③ 범두 텃마루에 성큼 올라서니/ 군중은 최가놈을 징벌하라 최가놈을 죽이라 웨치는데/ 범두 눈을 부릅뜨고 벽력같은 소리로/ 최가놈에 대한 처단을 내린다// -너는 한간악패지주 왜놈개다리/ 장리농이, 변농이, 살인강도.../ 감조감식마저 한사코 반대한 죄로/ 너의 재산을 몰수하여 군중에 돌린다. (『풍운기』 제5장 분노의 불길 16 부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범두는 박운씨와의 만남을 계기로 착취계급과 맞서

싸워 세상을 밝혀야 한다는 각성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각성 이후 범두가 사촌지간인 덕수와 함께 야학을 하다가 나서게 된 일은 최지주의 만행으로부터 세월이를 구해내고 그를 심판한 사건이다. 이 일은 1920년대 중국 공산당이 시행한 감조감식 정책이 무산자 대중의 뜻을 반영하고 있으며, 범두가 지닌 새로운 세상에 대한 지향이 당의 정치적 목표와 부합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이로써 범두와 덕수는 본격적으로 유격대 활동을 벌이게 된다. 자신의 삶의 조건으로부터 계급 혁명의 정당성을 깨닫고, 일제가 통치하는 만주에서 계급 혁명은 곧 항일투쟁과 한 길이라는 것을 자각함으로써 범두는 당의 조직에 들어가 혁명투쟁에 나서게 되는 『풍운기』의 서사는 『고향 사람들』에 비해 구체성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연성을 확보한다.

뿐만 아니라 정범두의 행적에 관한 서사는 그가 지닌 계급적 각성과 자유와 해방을 향한 의지가 당의 노선과 일치함을 역설한다. 영웅적 인물과 당의 이념을 일치시키는 『풍운기』의 서사는 『고향 사람들』에 비해 한 인물을 통해 정치적 정체성을 강조한다. 『풍운기』를 통해 형상화된 정범두의 정체성은 또 한번의 각성을 통해 보다 명확해진다.

어머니는 서둘러 범두 상처 살피고는/ 이불깃을 찢어내어 빨고빨아서/ 다시 상처를 동여주면서/ 제 자식처럼 타이른다.// -중국사람 조선사람 한가지요./ 자네 상처입은걸 어머니 아신다면/ 오죽 근심하고 가슴 아프겠소.../ 그리곤 아침밥 지어준다.// (중략) 순간 가슴이 미여진다/ 눈앞에 눈앞에 선하게/ 나타나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영상/ -아, 나의 어머니는 한분만이 아니구나. (『풍운기』 제7장 신출귀몰 10 부분)

위 시에 나타난 정범두의 각성은 조선 사람과 중국 사람이라는 관념의 경계를 초월하며, 이들을 하나로 결합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어머니는 선택이 불가능한 생득적 관계라는 점에서 민족, 조국에 대한 비유로 등장하기도 하는데,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범두를 어머니의 심정으로 치료해주는 중국인 어머니는 더 이상 타민족이 아니다. 범두를 보살펴준 중국인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와 동일시된다.

이와 같은 정범두의 일화는 『고향 사람들』과 상이한 태도를 보여준다. 『고

향 사람들』에서도 중국인들과의 아름다운 인연과 항일 투쟁을 통해 나타난 운명 공동체에 대한 자각 등을 보여주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조선의 후예라는 정체성을 견지한다. 반면에 『풍운기』는 상징적인 어머니를 통해 조선 사람, 중국 사람이라는 경계 자체를 해체시켜 버린다. 그들이 지닌 계급투쟁과 항일투쟁 그리고 당을 중심으로 한 혁명에 대한 믿음이 그들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강력한 매개로 등장한 것이다. 그러한 정치적 각성 위에서 하나로 묶인 어머니와 아들은 새로운 정치적 공동체인 민족(nation)이다.

『백두산』의 주인공 김투만이 깨닫는 김투만이 깨닫는 민족은 모두가 동등한 인간 주체라는 계몽적 의식이라면, 리욱의 작품에서 영웅적 주인공들은 지주와의 갈등 구도를 통해 사회주의적 각성에 먼저 도달한다. 계급 모순에 대한 자각은 항일투쟁과 계급 혁명으로 확장되고, 여기서 이들은 함께 계급 혁명을 완수하는 인민 대중으로서의 집단적 정체성을 획득한다. 조선이라는 혈연적 토대의 민족을 넘어서 이들의 현실은 혁명을 통해 현재의 단결과 미래에 대한 이상을 함께하는 운명공동체를 수용하는 것이다.

#### 4. 결론

본고에서는 고은의 『백두산』과 리욱의 『고향 사람들』, 『풍운기』 세 편의 서사시를 대상으로 각 텍스트가 어떠한 민족 관념을 표출하는가를 분석해 보았다. 각 작품은 유사한 서사 구조 속에서 서로 상이한 정체성을 드러내며, 민족이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사회, 역사적 산물으로써 형성되는 관념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백두산』은 신성하고 초월적인 백두산이 민족의 근원지임을 강조한다. 백두산은 민족의 신화적 장소이면서 동시에 영웅적 투쟁의 본거지이고 미래의 민족 주체를 탄생시키는 공간으로 형상화되는데, 이러한 서사에는 1980년대 말 민족 문학 진영과 사회 운동 진영이 대중화하고자 했던 통일운동에 대한 요구가 내포되어 있다. 민족의 동질성이나 신성성 등 민족을 절대화하는 담론들은 통일운동을 대중화하는데 유효한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다. 민족을 정치적, 국가적 범주보다 초월적인 집단 정체성으로 재현함으로써 오랜 분단 상황

을 극복하고자하는 당대의 요구가 신성하고 절대적인 민족 정체성을 창조해 낸 것이다.

이에 비해 『고향 사람들』과 『풍운기』는 항일무장투쟁을 통해 민족의 이주 사로부터 시작된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시사점들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항일무장투쟁의 성격을 계급혁명과 항일운동이 결합된 투쟁이며, 당의 지도와 공산주의적 신념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은 정치적 공동체의 성격을 부각시킨다. 『백두산』에 비해 주인공과 갈등하는 인물의 대립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리옥의 서사시는 유격대 활동을 하는 영웅적 주인공과 거기에 협력하는 무산자 인민 대중들이 일제와 결탁한 착취 계급인 지주 그리고 그 배후로서의 일본군과 타협할 수 없는 선악 구도의 대립을 겪는 것을 보여 주며 정체성 문제를 극명하게 제시한다. 두 작품 모두 제국주의와 자본가 계급은 착취를 통해 대중을 억압하는 계급으로 당과 인민 대중의 혁명 투쟁을 통해 소멸해야 하는 적이다. 리옥의 서사시에서 항일 투쟁과 계급투쟁은 서로 동일한 목표를 지닌 투쟁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에서 계급적 성격이 종족적 민족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요구로 나타나는데 반해, 『풍운기』에서는 계급적 정체성이 새로운 사회 집단의 정체성으로 전면화되면서 조선인이라는 혈연적 민족 관념은 서서히 폐기된다. 이러한 양상은 서사시가 창작 당시의 시점에서 작가를 비롯한 사회 집단의 욕망을 반영하는 서사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과거를 재구성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백두산』, 『고향 사람들』, 『풍운기』 세 편의 서사시는 한국과 중국 조선족 사회가 지닌 민족 서사의 차이를 통해 동일화될 수 없는 민족 표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고찰은 민족을 고정된 실체로 바라보는 자기동일적 태도를 비판하는 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민족이라는 동질감과 공통점 찾기의 시도는 재외 동포 문학을 바라볼 때에도 예외는 아니었고, 그러한 관점은 재외 동포 문학이 지닌 이산의 경험과 그 과정에서 배제된 새로운 정체성을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것이기도 하다. 1980년대 이후 확산된 상상의 공동체로서 민족에 관한 논의들은 민족이라는 관념과 실체를 해체시키고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이라는 이름 하에 배제된 다양한 정체성들을 차이의 관점에서 복권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 참고 문헌

- 고 은, 『백두산』 1권-2권, 창작과비평사, 1987.  
 \_\_\_\_\_, 『백두산』 3권-4권, 창작과비평사, 1991.  
 \_\_\_\_\_, 『백두산』 5권-7권, 창작과비평사, 1994.  
 20세기 중국조선족문학사료전집 편집위원회, 『20세기 중국조선족 문학사료전집 -제2집 리옥 문학편』, 연변인민출판사, 2002.
- 구인모, 「국토순례와 민족의 자기구성」, 『한국문학연구』 제27권, 2004.  
 권보드래, 「근대 초기 ‘민족’ 개념의 변화」, 『민족문학사연구』 vol.33, 민족문학사학회, 2007.
- 김은영, 「중국 조선족 장편서사시에 나타난 역사적 체험의 특성」, 『한중인문학연구』 vol.19, 한중인문학회, 2006.
- 김재홍, 「‘백두산’과 ‘만인보’, 그리고 고은의 문학사상」, 신경림, 백낙청 편, 『고은 문학의 세계』, 창작과 비평사, 1993.
- 신형기, 『민족 이야기를 넘어서』, 삼인, 2003.
- 윤영실, 「문학적 글쓰기와 민족의 공간」, 『한국현대문학연구』26, 2008.
- 연변대학교 조선문학연구소, 『김조규·윤동주·리옥』, 보고서, 2006.
- 임지현,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소나무, 1999.
- 윤여탁, 「한국 문학사에서 중국 조선족 시문학의 의미」, 『선청어문』 vol.35, 서울대학교, 2007.
- 장은영, 「고은의 『백두산』에 나타난 망각과 기억의 서사」, 『현대문학의 연구』vol.42, 한국문학연구학회, 2010.
- 전진성, 「역사와 기억: “기억의 티”에 대한 최근 독일에서의 논의」, 『서양사론』 제72집, 한국서양사학회, 2002.
- 정덕준, 『중국조선족 문학의 어제와 오늘』, 푸른사상, 2006.
- 최호근, 「집단 기억의 역사」, 『역사교육』 제85집, 역사교육연구회, 2003.
- ASSMANN, Aleida, 변학수·백설자·채연숙 역, 『기억의 공간』, 경북대학교출판부, 2003.
- BALIBAR, Etienne, 서관모 역, 「민족형태: 그 역사와 이데올로기」, 『이론』 통권 6호, 1993.
- HALBWACHS, Maurice, The Collective Memory, with an introduction by Mary Douglas, New York: Harper-Colophone Books, 1950.

RENAN, Ernest, 신행선 역, 「민족이란 무엇인가」, 『민족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2002.

RICOEUR, Paul, 김한식 역, 『시간과 이야기Ⅲ』, 문학과지성사, 2004.

와카바야시 미키오, 정선태 역, 『지도의 상상력』, 산처럼, 2006.



❖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n configuration of the nation in epics

Jang Eun Young

This study focused on difference of the nation's concept between Ko un's *Baekdusan* and Lee uk's *Gohyangsaramdul*, *Pungungi*. These works are epics restructure nation's history. A epic's story provides framework of recognition to social members. An individual and community accept their story and then stories construct personal identity and community's identity. So we can say a epic configures national identity by story nation history and nation territory.

The nation's concept is understood steadfast and very pure as like a blood relationship in Korea. This is aspects of Korean nationalism. But the Nation is modern, social and historical concept. That is different from ethnic identity. This way throws open the door to analyze nation identity.

Ko un's *Baekdusan* narrates permanence and sacralization of the nation for emphasizing the unification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Baekdusan* expresses the social desire of Korea in the 1980s. In comparison, Lee uk's *Gohyangsaramdul* representate ambivalent attitude. One is a position as a settler and the other is a new master of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So *Gohyangsaramdul* narrates and remembers their motherland Chosun. But *Pungungi* exclude recognition of Chosun as motherland. This work's narration focuses on association with struggle of classes and anti-Japanese Movemen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ecause these events are able to unity Korean and Chines.

Three works deal with same history and same background, but those show different recognition about the Nation. Because each society has different social desire and expect different future. The present desire and future prospect construct nation identity.

---

**Key Words**

백두산, 고향 사람들, 풍운기, 민족 정체성, 민족 주체

*Baekdusan, Gohyangsaramdul, Pungungi, national identity, national subject*

논문접수일: 2011. 10. 19.

심사완료일: 2011. 12. 02.

게재확정일: 2011. 12. 09.